



기도제목

번역되어진 신약과 시편성경이 각 교회를 통하여 잘 보급되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번역팀, 문해교육팀, 성경활용 팀이 많이 지쳐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구약성경 번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 상황 (계속)

EGIDs - 2016년 ETHNOLOGUE는 5(developing)에 매김. 이는 표준어 작업이 이뤄져있고, 이 언어를 사용한 여러 도서들이 발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위험성이 있음을 의미함.

문맹률 - 전체 문맹률을 대략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의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공식 학교 교육이 여전히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 선교사 부부는 툴롱어 글자를 만든 후, 이를 널리 보급하는 문해교육 사역을 10년 이상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찬송가와 성경을 통한 문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때 믿지 않는 이웃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인구수 - 35,000 여명 정도로 이는 전체 네팔 인구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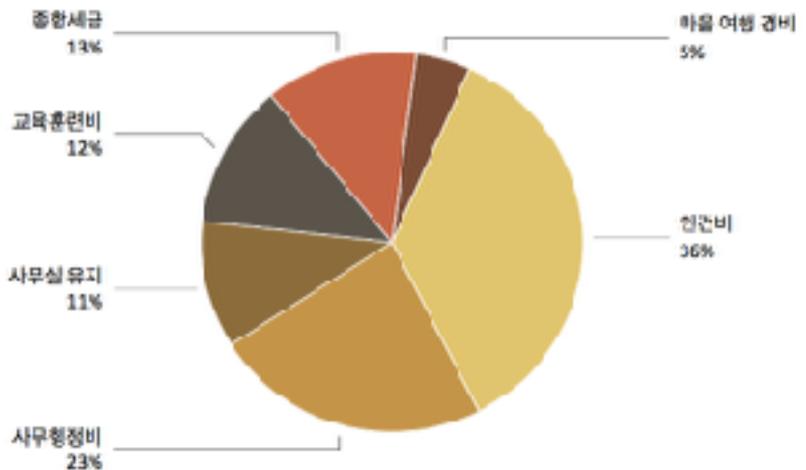
복음화율 - 2017년 현재, 솔루쿰부(우리나라의 도) 전역에 걸쳐 14-17개의 교회가 있고, 약 2000여명의 신자가 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툴롱부족 예배모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재정후원

8년 장기(2025) 프로젝트로서 인건비, 사무행정비, 교육훈련비 등

1년 평균 \$32,400 (매달 \$2,700(약 300백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

인건비	11600
사무행정비	7600
사무실유지	3500
교육훈련비	4000
마을여행경비	1500
종합세금	4200
합계	\$ 32400



프로젝트에 대해

톨롱어 프로젝트는 히말라야산지에 있는 민족의 모국어 성경번역을 통해 복음화와 제자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2000년에 시작되었고, 2017년 3월, 신약과 시편이 완역되어 출판되어 보급되고 있다. 계속되는 현지인의 요청으로 인해 구약성경 번역팀을 임시적으로 꾸려 초역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창세기-출애굽기가 초역되었고 석의 점검(exgestical checking)이 이뤄지고 있다.

구약 성경번역은 8년 장기 프로젝트로서(아래 그래프 참조) 초역, 석의 점검, 그리고 번역된 초안들을 마을 사람들과 같이 점검하는 2차 점검, 컨설턴트와의 최종 점검 등이 있다.

